

글쓰기에서 쉽게 저지르는 실수

“논문을 살펴보았는데, 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네요.” 교수 학습 개발 센터의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사업 프로그램 중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글쓰기 교실의 한 연구원께서 말하신 이 한 마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. 나의 논문 주제가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최신 주제였기 때문에 영어로 쓰인 문헌들만 참고했고,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 및 조교님들과도 영어 용어를 주로 썼던 터라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 이 지적을 계기로 전공자도 수개월에 걸쳐서 습득하고 조사한 전문용어들과 수식으로 가득 찬 나의 글이 배경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보게 되었다.

이 글은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작성한 것이기에, 무엇보다 글쓰기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. 글쓰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의 학업과 관련시킨다면 그 목적은 ‘예상되는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’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.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적의 글쓰기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? 이를 필자의 경험에서 찾아보고 글쓰기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이러한 과정이 특히, 일반적인 이공계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

공과대학생으로서 지난 4년 동안의 우리말 글쓰기를 돌아보면, 주로 교양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대부분이었다. 필자가 속한 기계항공

●●●
박규철

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

공학부의 전공 시험과 과제 대부분은 수학을 주된 언어로 한 문제풀이 위주였고, 한글은 개념 설명 수준에서 그쳤다. 게다가 영어를 번역한 단어들도 그 뜻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, 답안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말은 접속사와 조사뿐인 경우가 많다. 이런 경험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이번 논문도 논리 전개에만 집중했다.

지난 3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, 논문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서 타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검토를 부탁했던 때가 떠오른다. 그 중 한 명은 필자와 거의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“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.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는 물론이고, 이런 내용이 글의 구조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.”라는 평가를 해주었다. 논문 계획서의 ‘독자’가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, 마이크로 유체역학이라는 분야에 생소한 일반인도 될 수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금에서야 다시 한 번 깨닫는다.

그렇다면, ‘독자’를 고려한 글쓰기를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? 가까운 예로, 글쓰기 과정은 최근 공과대학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발표 수업 준비 과정과 유사하다. 발표 시 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때 발표 준비자는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들을 준비하고, 발표문을 미리 작성하고 연습을 통해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. 이 과정을 글쓰기에도 적용해서,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묘사하거나 비유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. 그리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수준을 미리 고려해서 초고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 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.

교양 수업에서 작성한 중간 및 기말 리포트들을 떠올려본다면 이 조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. 예를 들면, 인류학이나 한국사와 같은 분야에서 비전공자인 필자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 쓰는 글쓰기 방식을 습득했는데, 이것이 좋은 성적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. 이를 위해서는 강의를 담당하는 분이나 같이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, 자신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.

양자전기역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최신 물리학을 쉽게 설명한 강연자 및 집필자로도 유명하다. 그는 이론 전개 과정에 쓰이는 고급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전공인 물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잘 전달했는데, 그 비결은 다음과 같았다. “내가 그걸(양자이론에 대한 지식) 평범한 사람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면 나는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걸세.” 이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생들도 자신의 연구 성과나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.